



과녁에서 화살을 뽑은 이특영이 활 시위를 다시 당기기 위해 사선으로 걸어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하루 10시간 활시위

올림픽 2관왕 정조준

스포츠 포커스

“응애~, 응애~”

1989년 12월 2일 화순군 남면 사평리 한 시골 집에선 땅이 깨질듯한 한숨이 쏟아졌다.

딸만 넷인 탓에 마지막 아들을 고대하곤 10개월을 기다렸지만, 다섯째 딸의 유품소리만 방안 가득 울려퍼졌다.

남아선호사상이 적지 않게 깔려있던 당시 딸만 내리 다섯을 낳았으니,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다.

시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던 며느리는 죄인인 마냥 숨죽여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여고생 신궁’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특영(17·광주체육고)은 이렇게 딸 부잣집의 천덕꾸러기 막내딸로 세상의 첫 빛을 봤다.

“특영이란 이름도 뒤늦게 3살때 지었다”는 아버지 이면식(57)씨는 “특별히 주변 사물에 관심이 많고, 어느 아이들보다 움직이는 양도 특별히 많아, 이웃이던 면사무소 직원과 상의끝에 특별할 특(特), 꽃부리 영(英)으로 호적에 올렸다”고 말했다.

다행히(?) 5년 뒤 연년생으로 두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미운털 박힌(?) 막내 딸이는 떼어냈지만, 그때부터 온 가족의 관심은 동생들의 차지가 됐다.

이특영은 아들에 대한 간절한 열원을 안고 태어난 딸인지 어려서부터 또래 남자 친구들보다도 운동에 특별한 소질을 보였다고 한다.

두암초등학교 4학년 때 양궁 감독이던 정남진 담임선생님은 이러한 이특영의 운동 감각을 눈여 봤고, 양궁부 입단을 권유했다.

세계적인 여궁사는 양궁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이특영은 양궁 입문 후 빠른 적응을 보였고, 동명중 2학년엔 전국소년체전 2관왕, 3학년엔 3관왕을 거머쥐며 신궁 소녀의 탄생을 알렸다.

이특영의 ‘신궁’ 기질은 광주체육고 진학 이후 일취월장했다.

이특영은 광주체육고 1학년 때인 지난 2005년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돼 같은해 제43회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양궁 사상 최연소인 만 15세로 세계 대회를 제패하는 기

신궁 신화 쏘는 광주체고 이 특 영

록을 세웠다.

2006년엔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제 2차, 4차 월드컵 국제양궁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3위를 잇따라 획득한 뒤 제 15회 도하 아시안 게임에선 단체전 우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교 3학년이 된 이특영은 올해를 맞는 각오로 남다르다.

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 10시간의 훈련 시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목표인 올림픽 2관왕의 꿈을 2008년 이징 올림픽에서 이루고 싶다는 그는 “양궁에선 타고난 천재는 없고, 노력하는 천재만 있다”면서 “모든 성적은 얼마나 많은 훈련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17세 소녀답지 않은 속깊은 말들도 이어냈다.

딸 부잣집 천덕꾸러기(?) 막내딸로 세상 첫 발

최연소 세계무대 제패… 한국 양궁의 ‘복덩이’로

우선 제 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정했다.

그동안 각종 세계대회에서 따낸 단체전 금메달은 수두룩하지만, 개인전은 2위가 최고 성적이다. 또 오는 10월 고향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여기에 육심많은 딸 딱 딱 모든 양궁 선수들의 최종 목표인 올림픽 2관왕의 꿈도 함께 꾸고 있다.

칼바람이 매섭던 지난 10일 광주체육관 양궁 훈련장에서 만난 이특영은 하루 10시간을 훈련 시간으로 정해놓고 500번 이상의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그 흔한 휴대폰을 갖는 것도 대학 진학 후로 미뤘다고 했다.

‘속사형 활쏘기가 자신의 점점’이라는 그는 세계 정상에 오른 훈련 노하우를 묻자, “남들보다 조금 더 연습하는 것”이라며 “요즘은 기초 체력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팔굽혀 펴기와 러닝을 꾸준히 하는게 비법이라면 비법”이라고 말했다.

이특영은 또 “국내에서 최고의 기량에 올라선 경쟁자들이 30여명 정도에 이른다”면서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

‘천덕꾸러기 막내딸이 복덩이가 됐다’는 말에 이특영은 “앞으로 남은 전국체전, 세계선수권 대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최종상에 올리 진짜 복덩이가 되고 싶다”라며 해맑게 웃었



‘여고생 신궁’ 이특영이 지난 10일 광주체육관 양궁 훈련장에서 과녁에 끊힌 자신의 화살을 빼내고 있다. 하루 10시간동안 500발 이상의 화살을 쏜다는 이특영은 그 과녁도 연습량 만큼이나 화살자국이 춤출하나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특영 주요 입상 경력

- ▲ 2003년 전국 소년체육대회 2관왕
- ▲ 2004년 전국 소년체육대회 3관왕
- ▲ 2005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개인전 2위
- ▲ 2006년 제 2차, 제 4차 양궁월드컵 단체전 우승, 개인전 3위, 제 15회 도하아시안게임 단체전 우승

다.

30여분간 진행된 인터뷰를 끝낸 이특영은 곧바로 양궁 훈련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훈련 때문에 더 오래 얘기를 나누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잠시 뒤 연습장 사선(射線)에 들어선 이특영의 날카로운 눈빛을 볼 수 있었다.

웃전에 웃으며 얘기를 나누던 천진난만한 17살 어린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활 시위를 당기는 당찬 모습을 보니 올림픽 2관왕의 꿈도 그리 멀지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작은만남 큰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본사 시판부(062)222-8111

청진동해장국

회정동 서부코아 새마을금고사이
한국수제라면세계보국립대체경국
대표 조 춘 화
☎(062)367-2759

우진석재산업

회정동 월드컵경기장맞은편 3층
묘지조성, 조경, 석축, 이장, 유골합 도소매
기획답글당, 납골묘, 일몰석, 시리모도석
☎(062)374-9231

하미수영장

용봉동 전대후문쪽 하미스포렉스내
회원수시모집
개장 06시부터 ~19시30분까지
☎(062)269-5757

크렌시아(서방점)

우산동 서방시장건너
개주일 전문점
대표 최 상 범
☎(062)525-5670

영빈관웨딩홀

옹봉동 하미스포렉스내
부케1SET, 초대장200매,
결혼식케이스, 삼파인무료증정
☎(062)261-2000

김스골프아카데미

목포 상동 노동청맞은편 MFS맞춤전문
클럽, 클럽피팅, 사프트교화
미국 정품스포츠 헬스니트제프고글(체험회)

☎(061)287-5050

강남 수퍼

계림동 299-8번지
대표 염 수 연
☎(062)226-3521

구황연능역학원

양동 틀고개 삼거리
누구나 평생 30살후 흥망성쇠 3년 됩니다
역학사 구 병 팀
☎(062)366-8766

정관장총수남문로지점

학동 그랑프리호텔옆
대표 고 성 만
☎(062)232-2304

(주)건 시스템

신기동 신기병원앞
PC방운영 PC방설치 PC방리모델
대표 이 현 우
☎(062)952-7989

백 천 암

풍암동 백암국민건너편
시주, 관상, 궁합, 사업, 금전문
운로를 알고 행하면 실패는 없다
☎(010)5393-0557

백 천 암

풍암동 백암국민건너편
시주, 관상, 궁합, 금전문
운로를 알고 행하면 실패는 없다
☎(010)5393-0557

대서양횟집

풍암동 서창농협 운리지점건너편
각종회 전문
대표 김 정 님
☎(062)653-0094

대서양횟집

풍암동 서창농협 운리지점건너편
각종회 전문
대표 김 정 님
☎(062)653-0094

먹보돼지삼겹

운남동 천지연사우나 건너
돼지삼겹살전문 단체손님환영
대표 한 둘 아
☎(062)955-1773

먹보돼지삼겹

운남동 천지연사우나 건너
돼지삼겹살전문 단체손님환영
대표 한 둘 아
☎(062)955-1773

출인원골프클럽

한국우리은행사거리 새마을금고 옥룡스포츠
풀인원 회원수도모집 프로골퍼 : 백승지도
대표 김 용 문
☎(062)973-5551

장성가마골

증평동 평화프리자골목
한우전문
대표 황 봉 수
☎(062)514-5256

장성가마골

증평동 평화프리자골목
한우전문
대표 황 봉 수
☎(062)514-5256

돼지집숯불구이

용봉동 1380번지 택지지구내
한우숯불양념구이 대자숯불양념구이 전문
대표 박 현 속
☎(062)528-2292

돼지집숯불구이

용봉동 1380번지 택지지구내
한우숯불양념구이 대자숯불양념구이 전문
대표 박 현 속
☎(062)528-2292

한우리

증평동 태봉골짜 평화프리자골목
한우전문점
대표 김 안 창
☎(062)512-9595

한우리

증평동 태봉골짜 평화프리자골목
한우전문점
대표 김 안 창
☎(062)512-9595

광장숯불구이

누문동 202-1번지 양동마을 한우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대표 조 성 종
☎(062)525-9695

광장숯불구이

누문동 202-1번지 양동마을 한우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대표 조 성 종
☎(062)525-9695